



2026. 7. 20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李 정부 포용금융 기조에 중소기업 대출금리 낮아져

매일경제 <https://zrr.kr/P8RzHP>

가계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 개인신용대출이 8%대까지 오르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금리는 4~5%대 수준 정부가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강조함에 따라 은행들이 중·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누르면서 나온 현상

KB국민銀,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조기상환 유도

서울경제 <https://zrr.kr/NRLu4W>

KB국민은행이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고 신용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한 데 이어 조기 상환까지 유도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

"후계자 없다고 폐업?"...은행들이 나섰다

매일경제 <https://zrr.kr/4zK8gG>

은행권이 후계자가 없거나 사업 재편이 지연되며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사례 증가에 따라 '기업 승계' 관련 금융 서비스를 확대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과도 맞닿아 있어 은행들은 기존에 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주식 무섭죠? 더 드릴테니 돌아오세요"...은행들 연 10% 특판 쏟아낸다

매일경제 <https://zrr.kr/Kt6fAA>

위험자산 투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코스피 상승기에 증시로 이동했던 '에테크(예금+재테크)'족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3%대 중반까지 올라왔고, 저축은행권의 1년 만기 기준 평균 금리가 4%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금융위기·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이달 변동성 역대 최대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rdFGgg>

7월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피 일종 평균 변동률은 6.75%로, 한국거래소가 1987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 반도체 고점 우려에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더해져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금이 물린 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에 따라 날뛰는 장세가 이어진 영향

해외서 원화 계좌 열고 삼전닉스 투자...MSCI 편입 걸림돌 없앤다

한국일보 <https://zrr.kr/pbLmRO>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평소 이용하는 해외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해 24시간 언제든지 원화로 환전한 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에 투자 가능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대폭 높여 최근 불발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車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 60% 돌파...'8주률' 지연에 손보사 적자 커진다

뉴스1 <https://zrr.kr/3pDY8d>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의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감 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8주률' 도입이 지연되면서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가 장기화 되고 있는 손보업계의 부담도 확대

37시간 넘긴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이틀 연속 밤샘 진화

연합뉴스 <https://zrr.kr/9JS9Fw>

소방 당국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이틀 연속으로 밤샘 진화 작업 2021년 6월 덕평 센터 화재는 초기 진화까지 사흘, 완전 진화까지 엿새가 걸렸는데 인천 물류센터의 연면적은 덕평보다 2배 넘게 넓어 진화 작업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코인 법인투자 열린다더니...은행권, 제도 지연에 손발 뭉뚱

머니투데이 <https://zrr.kr/Hmf6Uh>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1거래소 복수계좌' 논의와 맞물려 있어 은행권에선 속도를 내주길 바라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탓에 논의 자체가 더딘 상황이 때문에 실물 계좌가 트여있지 않은 은행들은 거래소와 관계유지 차원의 미팅을 이어가는 수준

클래리티법 진통...트럼프 막는 4가지 허들

이데일리 <https://zrr.kr/wPeWEX>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달 1일부터 상원 본회의에 올라 있어 언제든지 표결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표결 일정은 미확정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클래리티법 통과를 막는 4가지 허들은 윤리 문제, 법 집행기관의 반대,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률) 하점, 규제기관 인력 부족 문제 등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